

MEMO

[마을에서 '미래세대'로 살아남기]

수다집

목차

세미나 소개..... 2

OT 3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4

대학거부 그후 8

조용한 전환 - 3.11이 열어 준 가능성의 공간들..... 11

청소년 자치 이야기 15

세미나를 마치며 & 엮은이의 이야기 19

기록한 이: 필부

엮은 이: 신원

후원 _ 서울특별시

세미나 소개

청소년 당사자로서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처음 사회운동을 접하고 주체로 뛰어든 주민들이 노원지역에 있다. 이들은 10대에서 20대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청년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이른바 '미래세대'로 불리게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사회 속에서 시민성이 객체화되고 자기상품화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문제와 청년 시기의 문제가 서로 연결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변화해가는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인권과 더불어 '청년의 삶'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을 연구/형성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삶의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을에서 '미래세대'로 살아남기]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번 서로 삶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했다. 또한, 책을 읽으며 든 고민이나 질문들을 정리해 함께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다집은 공유된 질문들과 의견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나누는 수다들을 정리했다.

참여자 소개

선우: 청소년인권과 만난 지는 3년이 좀 넘었다. 이제 늙어버렸다(...) 청소년이던 3년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새삼스러워질 때가 있다.

신원: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10대의 절반을 진보정당운동과 청소년운동에 함께 했다. 얼떨결에 맞이한 '청년'이란 신분에 뜨악해하며 노원지역에서 청소년 주민을 만나고 있다.

임다희: 노원구에서 숨쉬는 사람.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준: 준준이다. 청소년과 여성입장에서 습관적으로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당사자성은 부스스 떨어져 가서 슬프다. 고2, 3 때 학생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졸업하면서 '항상 예의가 바르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필부: 청소년일 때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늦게나마 일상을 제쳐놓고 청소년운동에 몰두했고, 일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요즘은 일상을 더는 마냥 제쳐놓진 못할 것 같아 고민 중이다.

OT

이 자리는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모임을 이어갈지를 이야기하고 마음 열기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것 - 일상적인 힘들을 뛰어넘는 재미였습니다[플랜B] 를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공유한 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를 마무리했다.

선우: 좋은 썰 풀이의 장이 될 것 같다. 비록 오늘 이야기들은 중구난방이라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지만,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기도.

임다희: 이곳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웃음)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마을 사업들을 살짝 보니까 하하 호호 하면서 잘 지내시더라. 취미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모임이 주를 잇는데, 그런 곳들과는 달리 이곳의 테마는 인권 이런 거 다 보니,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국가나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해도 개인까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 살 자신도 없고 생존할 수 있을지도 아슬아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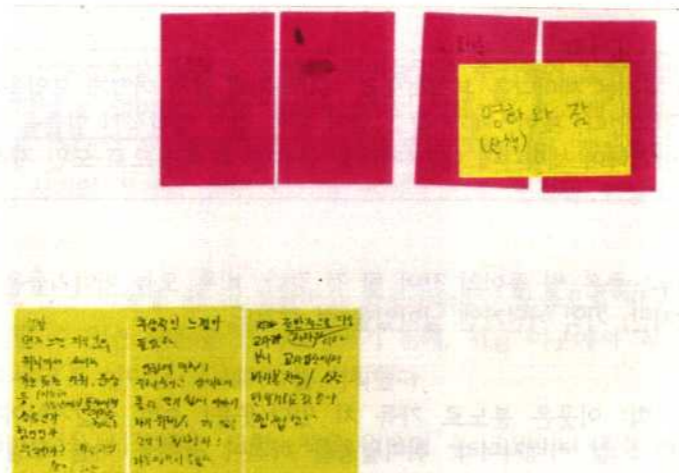
필부: 그냥 말들이 나오는 대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세미나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선우는 입이 아직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웃음) 과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음 열기가 다 된 것일까.

준: 이번 OT 때 읽은 글이 활동가조직 안에 속해있는 사람의 자기고백글 이었는데,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고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이나 가치 추구, 욕구 충족 등 삶의 원동력이 되는 소재들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욕구가 억압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자들의 공간, 직장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나이(권위)주의를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존하려고 하는 지까지 얘기가 확장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이상은 돈 받고 밥 먹으면서 힘들 땀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신원: 운동이라는 것이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내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성장해갈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의 '내' 운동은 이 부분만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도 과연 그럴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이번 OT는 스스로 고민하던 이야기를 속으로 정리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가 기대도 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욕구(욕망) 구체화하면 할수록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져서, 이 세미나를 통해 함께 그런 작업을 계속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교육공동체 벗 출판 / 공동 저자]

1~2회 세미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을 읽기로 했다. 학생인권으로 부터 활동을 시작해온 이들이 모인 만큼, 한국 사회 안에서 학생인권 이슈를 가장 널리 알린 운동이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과 지역별 현황 그리고 교육현장 등에서의 분위기를 알고자 했다.

1. True Love. 진정한 사랑 앞에 오지랖아, 나대지 마라

"단풍나무 위의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는...(중략)...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다...(중략)... 여선생님은 '그 위에서 졸다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니, '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하니까' 하고는 상대도 해주지 않은 것에 분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풍나무 주위의 작은 돌까지 주워 내어 부드럽게 흙을 고른 분입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213p]

- 박복선 씨가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할 것인가' 가 아니라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더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를 생각하자고 얘기한 대목과 이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PC방, 노래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제한과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과도 연결된다.

2. 성적만능주의와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선생님, 학생인권이고 체벌 금지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공부하는 놈들을 위한 곳이죠...(중략)... 수업 시간의 선생님의 눈빛, 공부 못해서 받는 멸시...(중략)... 전 솔직히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학생인권이에요"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215p]

- '학벌 콤플렉스'(노원청소년인권신문 종이비행기 5호 기사)가 떠오르면서 아주 반가운 대목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화나 분위기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에 격하게 동의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으로 무시 받으면 안 된다고 쓰여있지만, 눈빛(시선)까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 교육청이 주도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지적에서 나쁜 점에 해당하는 게 이런 점인 것 같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라는 틀을 학생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들고일어나야 한다.

3.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반대 논리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청소년들은 미숙하다'는 것이다.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는 유보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중략)...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중략)... 그런 생각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210p]

- 지역의 여러 모임에서 청소년인권활동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왔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청소년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무례함을 드러낸다.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고 중요도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요새 애들은 배가 부르다." / "청소년들인데 참 생각이 깊어서 놀랐다." / "내 자식 같다." 등

-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 사이, 그 중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냥 중간이라도 간다.

4. 상놈을 죽여도 "Sorry"하면 ok. 평민은 자살을 해도 불효자로 불린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자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일이 있다. 학생이 왜 욕 하느냐고 항의하자 교사는 징계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학생도 폭발해서 교사에게 욕을 했다...(중략)... 학부모님이...(중략) 이런 질문을 하셨다. "...[중략]...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욕설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중략)... 하지만 선생님도 학생에게 욕을 한 것은 올바른 교육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도 징계를 받느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182p]

- 학부모가 멋있었다. 선생님도 징계를 받으실래요? ^_^ 하는 거. 학칙에 학생의 의무는 많지만, 막상 교사나 교장이 져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것이 계급인 것 같다. 한편으론 이 내용을 보면서 한국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5. 포장되는 인권 미화되는 인권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인권이 보편적이었던 순간은 단 한번도 없다.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보편을 확대해온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잡음'과 '갈등'이 발생한다. 인권은 말끔하지도, 우아하지도 않다...(중략)... 학생들을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을 뒤흔들지 않고, 권력과 권한의 불평등에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예쁘게 포장된 '학생인권'만을 이야기하는 건 인권을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164]p

-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학살 수준으로 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학살자 '이미지'를 덮기 위해 퀴어 프렌들리(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핑크 워싱'이라고 한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 성소수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커뮤니티 내 성소수자들은 정부가 '그닥 하는 것이 없다'고 증언한다.
-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은 순수하고 착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장애인권 교육들이 있다. 인권이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에선 청소년이 막상 훨씬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고, 기발하고 참신하다는 말들도 있는데, 주체적이지 않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의 '일반화'든 불편하다.
- 지금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교육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입장에선 하나의 행정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인권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의 본질을 그대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6. 제3자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직접 만든 인권의 공간이 부럽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인권 문제의 발견 주체인 방식만이 지속성을 가진다는 현실은 안타깝다.

- 누군가 홀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해나간다는 것이 부럽다.
- 다만 아쉽게도, 이 경우처럼 교사 주도의 변화만 지속적인데, 이는 학생을 대상화할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다. 막상 학생이 이런 활동을 주도하려 하면 잘 안 되고, 학교 안에서 니가 뭘데 하는 반응도 상당하다.

책에 대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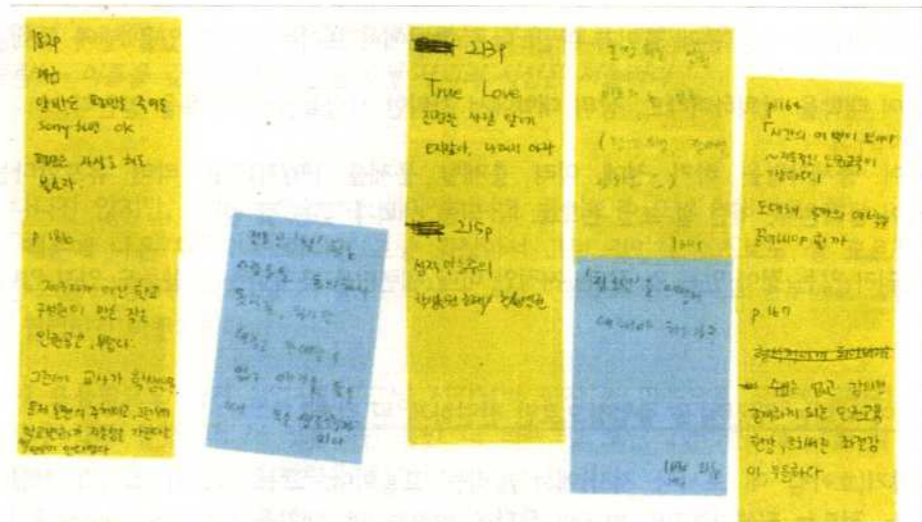
선우 : 2014년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우와 짱이다 학인조(학생인권조례) 짱짱맨 교사들도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라며 희망적이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 좀 비판적으로 읽혀서, 내가 어떻게 변했길래 이렇게 감상이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성숙일까 성찰일까 발전일까 한계의 직시일까(...)

임다희 : 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을 보게 되었다. 원하던 것과 핀트가 안 맞아서(...) 재미없었다.

준 : 책을 대충 읽어서 부끄러웠다. 익숙한 언어일 거라 생각했는데, 인권이 요즘 저랑 가깝지가 않다(눈물)

신원 : 개인적으로 책이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교사가 썼다는 한계지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말투와 사건들이 계속 나와서 '아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간극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읽어봐야 비판할 거리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필부 : 다른 계층(교사)이 바라보는 인권의 관점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물론 한계지점도 있던 것 같지만, 제가 워낙 주체성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타입이라 책을 읽으면서 '응 그래 그덕고덕 그럴듯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집에만 두고 가끔가다 읽어보면, 세상에는 그냥 '적'으로서의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대학거부 그 후 [교육공동체 벗 출판 / 공동 저자]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못했거나, 전문대를 가는 등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4년제 대학생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시간엔, 경쟁교육에 반대하며 한국에서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한 청소년/청년 8명의 에세이 집인 **대학거부 그 후**를 한번 읽어보고자 했다.

1. 만약 한국 사회에 살면서 돈이 충분하다면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지 않을까?

- 한국은 학력 높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고생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정도. 그런데도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거의 80%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
- 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수능 문제 풀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이는 강점도 있을 텐데 무시당한다.
- 한국에선 똑같이 대학을 자퇴하더라도, 상위 대학에서 자퇴한 사람들은 더 주목을 받는다.
- 수능출제위원이 출제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출제될 문제를 (학/지)연을 타며 유포한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온다. 이런 걸 보면 돈으로 다 되는 사회가 맞는 것 같다.
- 돈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지적인 미나 세련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2. 어쩌다 이 사회는 '인간됨'을 졸업장으로만 판단하게 된 걸까?

- 마시멜로 이야기(호야킴 데 포사다 저자)에서 찰리는 고졸이다. 그는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어느 정도는 픽션이겠지만 한국의 상황을 비춰볼 때, 대학을 나오고도 개고생을 해야 하는 이 '차이'에 화가 난다. 일본에선 프리터(알바만 계속하는 사람), 니트(아무 활동도 없는 사람)가 화제가 되는데, 이게 화제가 될 수 이유는 일본에선 이런 삶이 적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

-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한편에선 학력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먹으면 철든 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비슷한 것 같다.

- 시사회나 영화 단체티켓 구매할 때, 만 19세가 넘더라도 고등학생 신분인 사람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소속을 당연하듯 학교로 보는, 역겨운 시선이다.

3.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치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기업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오는 비용의 지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예시: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요구하는 등)이 비용을 어떻게 구조와 제도, 여튼 그 거대한 무언가에 떠넘길 수 있을까?

- 고용은 항상 불확실함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 불확실함으로 인한 비용을 사용자가 떠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이를 위해 국가, 제도가 있는 것이다. (예시: 최저임금법 제정 등) 손해 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는 쪽보다 감당이 가능한 쪽이 떠안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실패를 가장 안 하는 사람들만 고용하며, 고용된 이들은 그 실패를 드러내지 않으려 이를 은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알바 등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형태로 고용된다.
- 많은 시민단체가 각자의 활동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삶이 조여들면서 '확실함'이 담보되는 방식을 좇게 된다. 활동의 방향이 모험과 실험 대신,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뭘 할지 눈에 명확히 보이는 활동, 돈이 덜 드는/더 버는 활동을 중심으로 또 기존의 해오던 방식의 활동으로 말이다.

4. 4년제 대학생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는가?

"활동도 하면서 틈틈이 알바로 먹고 살면서 '이거 하다가 다음엔 뭐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을 할 때면, 대학생들이 왠지 부러웠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이라는 이름만으로 이런 고민으로부터 살짝 떨어져 있을 것 같았다...(중략)...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서늘하다."

[대학거부 그 후 - 22p]

- 대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신분 증명할 때 대학생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네"라고 한다. 그것이 대학생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만약 내가 직장 다니는 거 그냥 직장 다닌다고 할 거 같다. 요새는 그냥 "대학교 안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요." 라고 하지만, 찝찝하긴 마찬가지다.

- 공부 때문에 초등학교도 가기 싫었지만 "그냥 시간낭비 하자"는 마음으로 고등학교까지 갔다. 대학교를 2년제와 4년제에 각각 붙었는데 이 짓을 4년 동안 더 하는 것 보단 2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년제를 선택했다. 4년제가 부러운 게 있다면 학력을 좀 더 높게 쳐주는 것.

- 대학교를 가는 이유 중에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자연스러운 흐름 때문도 있다. 그 흐름을 벗어나면 이 책이 증언하는 '개고생'을 해야 한다. 흐름에서 벗어난 길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 이려면 대학을 가는 것이 낫다, 사실은. 사회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4년동안의 삶은 안정적으로 유예시킬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학교에서의 백들과 인맥이 생기기도 하고.

- 내가 했던 알바와 대학생인 친구가 했던 알바는 업무 강도와 시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러웠다.

- 노원구에서 여름/겨울방학 때 인턴을 대학생 대상으로만 뽑는다. 노인 - 대학생 룸세어링 사업도 대학생만 해당한다. 구청에 왜 대학생만 되느냐고 물어보니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힘들지 않냐는 답을 들었다. 매우 박혔다. 한편론 이 사업을 보며, 왜 노인과 청년이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싶었다. 우리보고 노인의 수발 들으라는 걸까? 이젠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수발을 떠넘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여기서 유일한 4년제 대학생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대학생이라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 편하다. 개꿀이다. 취업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비대학생보단 좀 더 널널하게 사는 것 같다. 쫓기는 삶을 유예시키면서 말이다.

5. 여러분은 내년을 그려보고, 5년 후를 그려보며 상상할 수 있는 오늘을 살고 계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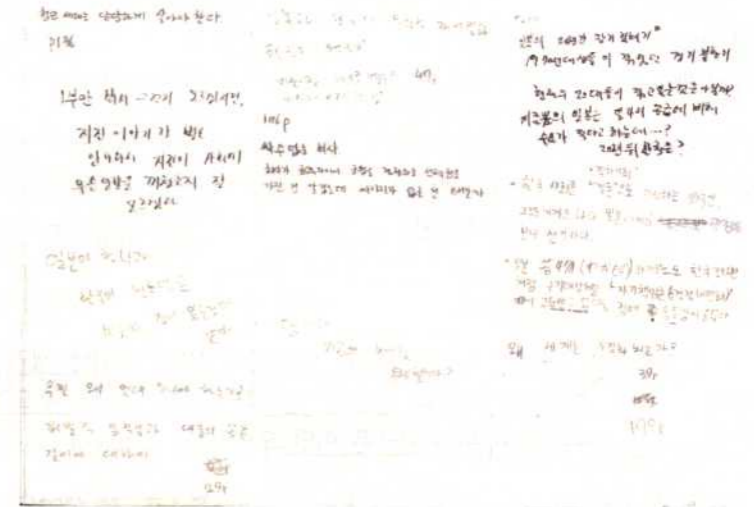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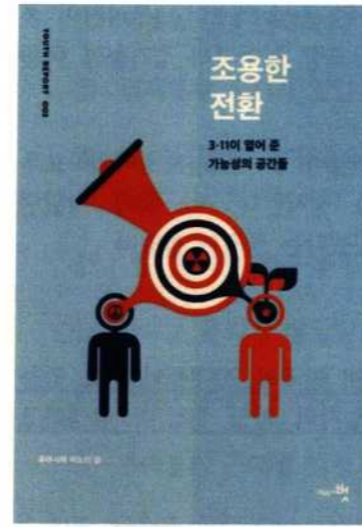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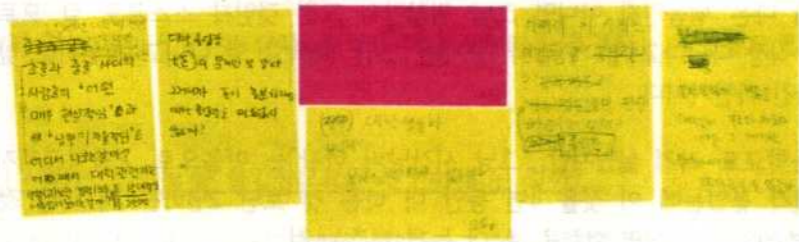
"졸업장 없이 살 수 있을까" / "대학을 가지 않으면 무시와 차별을 당할 것이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비참한 노년을 맞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전 사회가 일상적으로 심어 준 덕분인가."

[대학거부 그 후 - 44p / 45p]

- 대강 3년 정도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잡으면서도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매번 깨달으며 살고 있다.

- 계획이란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유예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 있긴 한데, 요새는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계획이 잘 안 그려진다.



조용한 전환 3.11이 열어 준 가능성의 공간들 [교육공동체 벗 출판 / 후쿠시마 미노리 저자]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또 다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네 번째 모임에서 다룬 책은 **조용한 전환 - 3.11이 열어 준 가능성의 공간들**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터져 나온 청년의 목소리와 새로운 삶을 향한 대안적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살펴보자.

1. 청년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136p

"도쿄의 신주쿠에서 '취업 활동을 때려 부수자'라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중략)... 참가한 청년들은, '취업 활동 너무 길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도 신규 졸업생 일괄 채용은 문제 있어!',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라!', '청년 세대들은 분노하고 있다!' 등의 구호를 쏟아 냈다."

[조용한 전환 - 136p]

-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끈대들이 '니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라며 지금 세상은 괜찮은데 우리(젊은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위축되곤 한다. 근데 따지고보면 '지금'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다. 끈대들도 해온 고생에 대한 보상은 그 윗세대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랫세대에 보상을 바라곤 한다.

- 취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청년들이 너무 착하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시위 참여자들이 들고 있던 '취업활동을 때려 부수자 찢어 죽이자'란 슬로건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했다.

1 - 1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 세미나에서만 말이 통한다. 엄마는 반쯤 이해한 것 같고, 아빠는 말하기 힘들다. 한번 꿈꿔보자면, 청년들이 전부 취업활동을 보이콧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왜 해?

- 불안하니까 토익을 준비하고, 고스펙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 책에도 언급된 소설 엑소더스(무라카미 류 저자)에선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결석한다. 그리고 조직된 학생들이 교장 찾아가서 점거농성 하는 등의 행동들을 한다. 진짜로 학생들이 학교를 보이콧했으면 좋겠다.

- 아르바이트노동조합에서 과거에 알바총파업을 얘기한 적이 있다. 만약 알바 / 비정규노동자가 모두 총파업을 한다면? 공장, 편의점 등 국가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기능이 정지한다. 이 책에 나왔던 '취업활동중단위원회'나 '취업활동을 때려 부수자' 등의 캠페인을 해봐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일본의 20년간 장기침체기로 1970년대생들이 겪었던 경기불황을 현재 한국의 20대들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일본은 일자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일자리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20년 뒤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197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본에서는 흔히 로스트 제너레이션, 즉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버블 경제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고, 버블 경제 붕괴의 여파로 찾아온 취직 빙하기를 거친 세대이면서 동시에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이어진 20년간의 장기 침체기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른다."

[조용한 전환 - 10p]

- '잃어버린 세대'의 이전 세대를 사토리 세대(여유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50~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에 진입해왔다. 한국에도 중고등학생 데모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선 이 사토리 세대가 중고등학생이던 시절 데모의 중심축이었다. 과거 한국에서 전두환 정부 때 교복 자율화를 했던 것처럼, 사토리 세대에는 널널한 시간표가 있었고, 시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지금 한국은 '청년취업난'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일본에도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지금의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퇴사하려는 것을 막으려 신종 이지메(왕따)가 생겼다고 한다. 아마 '우리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정말 배신 할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자극하는 식일 것이다. 그런데 20년 뒤의 한국도 과연 이렇게 될까?

- 일본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아무 활동도 없는 사람)가 존재하는 것도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은 그런 조건인가? 앞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정리해고가 횡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일본의 모습이 20년 뒤 한국의 모습일 수 있을까? 사실 일본을 겪어보지 않아 잘 상상이 안 된다.

3.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3-1. 공통점은?

- ① 식민지와 지배국으로 위치는 다르지만, 전쟁을 겪음
- ② 과거 정권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의 운동이 있었음

- ③ 국가의 근·현대화와 함께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함
- ④ 경제불황 시기가 있었음
- ⑤ 2010년대를 들어와 국민대참사를 겪음[일본 - 3.11 후쿠시마 대지진, 한국 - 4.16 세월호 참사] 다만 사건이 각 국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좀 다른 듯함
- ⑥ 법: 한국이 일본에서 제도의 틀을 많이 따와서 영향을 많이 받음
- ⑦ 아이돌 문화가 발달함
- ⑧ 문화·경제적 기반은 다르지만, 불안한 '젊은' 세대에 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옴
- ⑨ 끈대들의 끈대질 방향과 내용, 방식이 비슷함
- ⑩ 여성혐오를 포함해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자 혐오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권이 굉장히 후퇴되어 있음에도 치안이 좋다고 뽐을 칩
- ⑪ 학생들이 대부분 교복을 입어야 함
- ⑫ 청소년 심야 출입금지가 일본에도 있으며, 한국보다 심하기도 함(밤 10시 이후면 영화관도, 오락공간이나 유흥공간 등 거의 다 출입이 금지됨)
- ⑬ 청소년의 심야노동이 금지되어 있음

3 - 2. 차이점은?

- ① 일본은 근대화가 100여 년 동안 천천히 일어남
- ② 한국은 일본보다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없음
- ③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부활동이나 학생자치 문화가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강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④ 물론 특정업종은 도쿄(일본의 수도)로 몰리나, 일본은 워낙 자체적으로 지역자치에 특색이 많음. 하지만 한국은 주로 대도시로만 몰리게 되어 지역자치적인 특색을 가꾸는 것이 어려움
- ⑤ 일본은 가업을 잇는 장인들이 많음. 한국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지역이 발전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등의 이유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 심하나, 일본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비교적 적어 장인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듯함
- ⑥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달만큼의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이 이뤄지진 않음. 과거 소위 '기생집' 술집상이 지금의 한정식으로 탈바꿈한 이야기나, 장터국밥이 오히려 레알 서민문화일 수 있다는 의견들을 봐도 그러함

4. 일본의 청년과 한국의 청소년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 대학생이 된 청소년활동가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받는 대우는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청(소)년이 받는 대우는 일본에서의 그것보다 심지어 더 퇴보한 것 같다. 한국이 일본을 열화판(B급 복제품)으로 따라가는 느낌을 받는다.
- 청소년들은 지금 아주 화난 상태일 것 같다. 요새는 서울대 가도 취직 못 한다고 하고, 알바를 하면서도 별소리 다 듣고.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청소년이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난 후엔 나머지는 알바해서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학원 갔다 오면 삼각김밥 하나 먹기도 힘든데 뭘. 청소년은 자신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사장 새X는 '니 취미생활 하려고 하는거지'하면서 돈 깎고, 부모는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말라고 하고, 공부할 테니 대신 사달라고 하면 등골 빼먹는다고 하고. 청소년들은 욕구가 없는 기계 취급을 당한다.

5. 왜 세상은 우경화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은 아키히바라의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표면화되고 만다. 이 사건은 2008년에 파견 노동자로 일하던 한 청년이 ... (생략) ...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 ... (중략) ... 현재의 상황을 청년들의 심리가 무자비한 행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지금 곤카츠(결혼 활동 / 취직)는 여대생을 포함해 20~30대의 여성에게까지 범위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부모세대들의 삶인 '일벌레 남편'과 '가정주부 아내'라는 젠더화된 생존전략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전환 - 39p / 170p]

- 작년에 농담처럼 얘기되었는데, 트럼프, 박근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아베가 6자 회담을 하는 모습이 정말 현실이 될 것 같다. 필리핀엔 폭군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고, 프랑스는 내년에 극우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본 안에서 곤카츠가 확대된 이유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에게 가장 확실해 보이는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우경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나 소수자의 권익보다, 각자도생이 절실한 시대니까. 자아정체성이 불안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생존만은 보장해줄 수 있을 듯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청소년 자치 이야기 [푸른복지 출판 / 정건희 저자]

청소년의 자치활동은 지역 '트렌드' 중 하나다. 모임의 마지막 책인 청소년 자치 이야기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 자치와 관련한 활동을 해온 저자가 자신의 활동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책이다. 책을 읽고,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활동해온 세미나의 구성원들에게 '청소년 자치'란 어떠한 의미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1. 글쓰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청소년 자치란건 대체 뭐였을까...ㅇㅇㅇ

-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 정도라면 '청소년 자치'를 보고 있는 걸까? 이 책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저자가 다양한 청소년 담론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선 청소년 대상화하는 듯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이중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청소년 투표권의 연령 하향을 얘기하면서 '정치는 성적 유해물이 아니다. 포르노랑 다르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풀어낸 것 같다.
- 저자가 개신교라고 밝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읽을 때부터도 느낌이 싸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뭘 이루기 힘든 현실인데, 이는 개인보다 구조의 문제인 듯 하다. 근데 기독교에선 "내가 죄인이며,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답은 신만이 가지고 있으니,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책의 앞부분엔 공감될 말도 있지만, 결론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1. 저자가 곤대라고 느껴진 지점은 어떤 것이었나?

- '청소년 자치'에서 중요한 건 청소년인데, 그걸 이끌어주는 사람을 '청소년 활동가'로 규정한다. 이 얘기에서 불편한 건 청소년활동가를 성인으로만 전제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를 실제로 그려나가는 사람들은 '성인'인 '청소년 활동가'라는 것이다.
- 뒤표지에 '청년은 이상이며 역동이다. 이 땅 떠날 때까지 청년이고 싶다'라는 문구가 있다. 청년을 송고한 존재로 만드는데, 사실 기분이 더럽다. 청춘은 힘들고, 병자고, 계속 앓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건강하면 기성세대가 더 건강하다고. 역동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청년성'으로 포장하는지 모르겠다.

- 얼마 전 '주민운동의 힘, 조직화'(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저자)를 읽었는데, 주민지도자와 주민조직가의 역할이 나온다. 주민지도자는 주민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사자성을 가진 사람이 그 운동을 이끌 수 있으니까. 이 개념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 지도사의 존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주민조직가의 역할은 지원과 지지 그리고 '함께' 기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의 움직임을 '지도'하는 것은 어쩌면 자만이지 않을까.

- '청소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동료가 아닌 교육자/길잡이로서의 청소년활동가만 그 역할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게 곧대일 수 있다.

2. 청소년에게 '일을 던지고 뒷집지며 행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인권 운운하며 일을 진행한다면 자기고민과 학습이 필요하다. 관련활동들을 진행할 때면 담당 실무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을 던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뒷집 지고 아이들이 행하기를 기다린다. 청소년참여가 아니다. 실무자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청소년 자치 이야기 - 75p]

- 고2 때, 학교에서 한 반에 하나씩 알아서 연극을 만들라며 연극지도자까지 보냈었다. 애초에 연극을 왜 만들어야 하는 걸까 싶어 뻑뻑했다. 큰 기획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학교가 무책임했다. 그때 청소년 입장에서 너무 싫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요구를 비쳤을 때 곧바로 밀어줄 수 있도록 판을 깔고 명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기획에 있어 비전과 미래를 봐야 한다. 저자가 말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라며 던져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 청소년의 '자치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과 무책임함의 경계는 애매모호한 것 같다. 지역에서 청소년 주민들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자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수위도, 고민도 다르다. 그러면 결국 실무자가 책임을 다 지게 된다.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적절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3. 좋은 실무자란?

"문제는 ... (중략) ... 10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을 문제라고 칭하는 기성세대들이다. 10대가 사업의 대상이지 그들을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쁜 실무자의 전형이다."

[청소년 자치 이야기 - 48p]

- 실무자의 개념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앞에서는 활동가라고 했던 역할이 이 부분에선 실무자라 칭해진다. 그리고 추상적인데, 청소년의 일과 활동가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첫 교재였던 '가장 교육적인 가장 인권적인'이 떠올랐는데, 저자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쉽다.

4. 청소년/청년인권을 외치는 끈대. 씨를 다 말려놓고 물고기 잡는 법, 나눠먹는 법을 알려주는 건 고문 아닌가?

"문제는 또 있다. 물 반 고기 반인 어장에서 낚시하는 아이들이다 ... (중략) ... 세습 받은 어장에서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편하고 안라가고 안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강압에 의해 큰 어장에 물고기를 낚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리다 ... (중략) ... "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 그러나 먼저 왜 낚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낚은 고기를 누구랑 먹어야 하는 지를 알려주라."

[청소년 자치 이야기 - 39p]

- 애초에 물고기가 없는 현실인 걸 모르는 게 답답했다. 물고기를 떠먹이는 사람한테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하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나눠 먹는 법을 알려주라고 한다. 이 사람에게 물고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물고기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 요즘 시대엔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잡아주지도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필요적절한 시기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을래?'라고 제안하면 되지 않나. 왜 청소년은 항상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싶은 대상인가. '가르쳐 준다'도, '잡아다 준다'도 결국 '우리 없으면 청소년은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물고기를 잡든, 채집을 하든 수렵을 하든 청소년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

5. 왜 그렇게 운동권 '선배'들은 인재양성에 소질이 없을까? 신념 때문에 제 이념에 안 맞는 조건/사람을 허용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는걸까?

"민간 시민사회단체에서 ... (중략) ... 수년 간 단체를 지나간 청년들이 ... (중략) ... 남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떠나며 소수의 최상위 선배 지도력이 오랜 시간 거점을 잡고 있으나 중간지도력부터 그 아래는 일이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 ... (중략) ... 급료 문제 등의 요인도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획'의 권한과 '비전'이 없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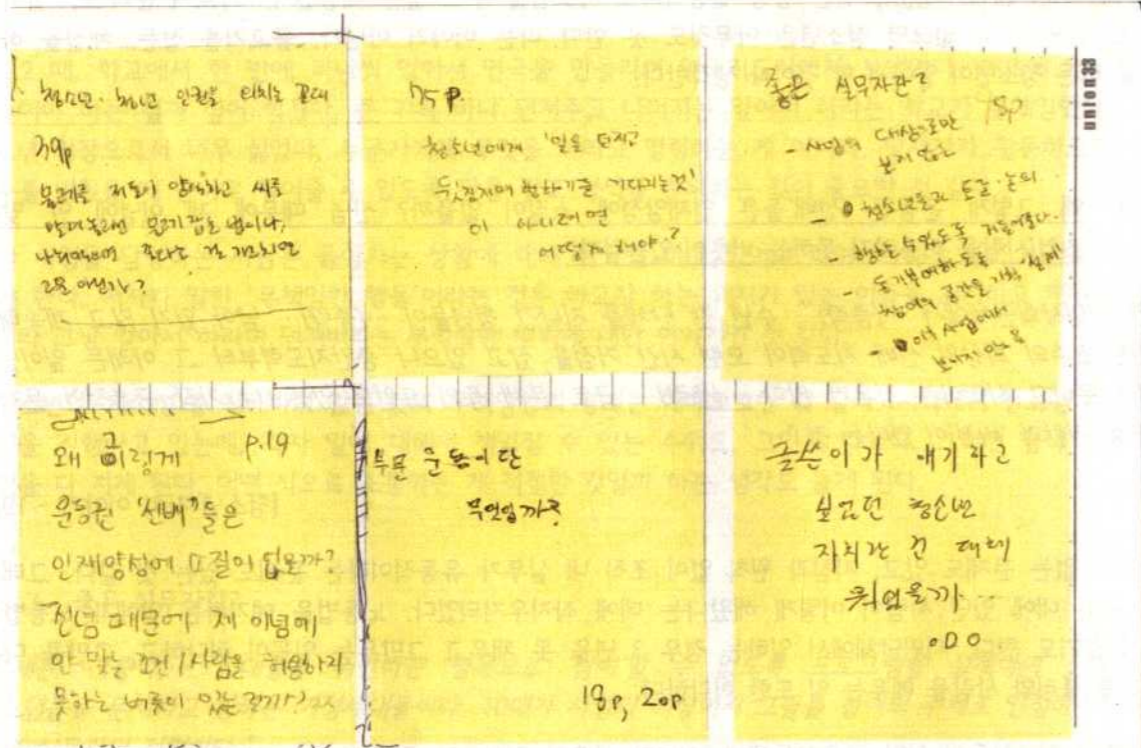
[청소년 자치 이야기 - 19p]

- 자본이 없는 문제도 있고, 지침과 원칙 없이 조직 내 실무가 유동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조직 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왔냐는 데에 좌지우지되었다. 노동법을 얘기하는 단체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도 한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경우 3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일들이 허다하고, 그만큼 다른 경력자를 불러와 사람을 메우는 일 또한 허다하다.

- 조직 내 최고참들이 신입 활동가들에게 '이념과 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실무 하느라 정신이 없지 않을까.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 것이 너무 강하기도 하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교정하려는 태도도 있고. 사람을 너무 대놓고 대상화하고 가르쳐야 할 존재로 상정하는 것,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다.

5 - 1. '선배'라는 관계를 욕구하는 것에 대하여

- 내가 선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거나 후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또 존경하는 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나 관점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구나 싶은 때가 꼭 오더라. 사실 선배를 삼고 싶은 건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결정에 판단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 선배 입장에서 양성하는 후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고 어떤 부분에선 자기보다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등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후배 입장에서 선배는 '인정하는 사람' 정도의 느낌. 솔직히 기본적으로 실무자에 대한 예의도 없는 폰대들과 부대끼느니 그래도 괜찮은 선배랑 활동판에서 썩는 게 낫지 않을까. 썩는 냄새라도 다를 거 아냐(웃음)
- 개인적으로 롤모델 같은 건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젠간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념이나 지향점으로서의 '산' 사람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인생이 끝났고 더 죄를 지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으니까 괜찮아(웃음)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잘못을 저지를 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내 신념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나.



세미나를 마치며

마을에서 '미래세대'로 살아남기 세미나를 진행하며 여러분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준: 정념발산 한 것 같다. 같이 밥 먹었던 것이 좋았고, 이 자리에서 서로가 잘 섞이는 느낌이어서도 좋았다. 자기들이 겪어있는 공간의 얘기를 한 것도 좋았다. 사실 대중 읽어오기도 했지만, 세미나를 하면서 청소년/청년으로서 살아가며 겪은 짜증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풀었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다. 사람은 서로 보면 볼수록 닮아가고 이해하고 그런 것 아닐까.

다희: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싫어한다. 책의 상당수가 집필진이 여러 명이기도 하고, 다 재미없었다. 강사가 있었다면 좀 더 재미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고 세미나가 너무 길다. 왜 매번 새벽에 끝나.

필부: 책 제목을 보고 기대했던 만큼을 100% 이루진 못한 것 같다. 몇 번 지적되었던, 내용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텍스트들이 논리 정연하게 정돈되어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많아서 아쉬웠다.

신원: 나를 포함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하고싶은 말이 많구나 싶었다. 우리에게 얘기할 공간이 없었고, 세미나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내년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지'란 고민이 들었다. 강사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선우: 서로가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더 드러내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까?란 고민만 늘어난다. 공통의 주제로 담합해서 '그래그래 맞아맞아'하며 서로 박치는 일들로 수다를 떠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앞으로 뭘 할지가 보일 것 같다. 과거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술집 가서 잡담하다가 뭔가 거리가 나오면 시행하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의 원동력은 분노다.

역은이의 이야기 - 신원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할 땐, 이른바 '미래세대'로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바뀔 수 있을지를 주로 고민했다. 기존의 마을과 잘 엮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고여있는 것만 같았다.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 알고 싶었고, 평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야기 끝에 다다르며,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보단 기반도 없고 불안정한 우리네 현실이 지금에 훨씬 본질적인 원인임을 깨달았다.

학교에 다니며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객체 취급을 받고, 불안한 일상의 한가운데 막상 함께하는 사람은 없고, 제도적 경험 속 민주주의 공동체는 없고, 기존의 가정에서 독립된 주체로 서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신을 돌아볼 만큼의 여유도 역량도 없는 상황의 발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해온 부분이 존재함은 알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구하겠다. 그 대상이 마을이든, 지역사회든, 사회운동 진영이든, 국가 자체든 간에 요구하겠다.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할 대안을 '같이' 마련하자. 불확실함만이 현재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지금의 상황을 '함께' 바꿔나가자. 여기서 본 이야기들을 통해 알았으면 한다. 우리에게 움직임은 절실함 그 자체임을, 매 순간 무기력에 저항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음을, 삶의 현장에서 당신들의 연대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이다.